

# 제2순환로 방음터널 설치에도 아파트 소음 피해

### 광주 서광주역 부근 ... 입주민이 설치 비용 58억 부담 소음 기준치 초과 준공검사 늦어져 재산권행사 어려움

광주 제2순환도로에 인접한 아파트가 방음터널을 설치했는데도 소음 기준치를 넘어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등 말썽이다. 입주민들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비용을 부담했지만 정작 기준치를 넘어서 반발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 인근 아파트들이 달리는 차량에서 나는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광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H건설 등은 최근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 부근에 68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 입주를 마쳤다. 이 아파트는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도로를 덮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하지만 58억원을 들여 길이 290m, 높이 5.5m의 방음터널 등을 설치했지만 일부 동(棟)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다. 업체 측과 시가 의뢰한 2곳 기관이 측정한 결과 최

소 6세대가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했다.

광주 서구청은 10개동 중 기준치를 초과한 1개동 준공검사 대신 가사용 승인을 하고 일단 입주를 허용했다.

광주시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지시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검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준공 검사가 이뤄지면 입주민은 등기이전 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음터널 설치 등을 위해 입주민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부담한 돈은 가구당 9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와 자치구의 무분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남발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최근 ‘광주시 공동주택 주변 방음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현재 2순환도로에 건설된 방음터널은 12곳에 길이만 2318m에 달한다. 하지만 뒷쪽 빈공간의 공명현상으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전남도 내달부터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전남도는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100% 이하로 늘리는 것이다. 소득으로 보면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57만4000원이고, 100%는 446만7000원이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100% 이하 가구는 둘째 아이나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도비 자체예산을 확보해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최대 10만3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산모는 이용료의 10%(기준 23%)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에서는 지난 7월까지 출산가정 6489가구 가운데 2093가구(32.3%)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전까지 소득 증빙자료 등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포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경술국치일 잊지 말자”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비전홀에서 열린 ‘제107주기 경술국치일 기념행사’에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회원과 광덕고생들이 그날의 치욕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29일 한·일 강제합병으로 국권을 강탈당한 날이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양동시장 주변 고령친화형 마을 만든다

### 2019년까지 36억 투입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양동시장 주변을 고령친화형 마을로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9일 서구에 따르면 양동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양동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양동 20번지 일원 5만5686㎡에 2019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생활

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와 노후 불량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이곳은 전체 건축물 91%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지역으로 공·폐가가 79%에 달한다. 주민 46%는 고령층이고, 과거 유틀업소가 밀집한 부정적 이미지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마을활동가 교

육 등을 통해 도시가스공급, 안전 및 기초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주택환경 개선은 공동터발 조성, 마을 기업 육성 등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일자리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기본계획안은 이달 2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타이완 관광객 900여명 전남관광 나선다

### 외국인 유치 다변화정책 결실

전남도의 외국 관광객 유치 다변화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이완의 지방인수보험회사 임직원 937명이 포항관광으로 30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관광에 나선다.

전남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제 영향으로 올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그동안 타이완 포항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여온 결과 이같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시와 여수시, 순천시와 협력해 타이완의 기업 포항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 대상 세일즈와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또한, 타이완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 등에 매년 참석해 전남을 홍보했고, 올해는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개설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행코스나 비용, 이동 수단과 숙박·음식·사

진 정보 등 한류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형태의 여행 콘텐츠로 제공되고 있고, 개별 관광객 대상 쿠폰복도 제작해 홍보 중이다.

올해 방문하는 타이완 단체 관광객은 여수에서 해양레일바이크, 엑스포공원, 오동도, 여수 야경투어를 한 뒤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송광사, 사후면세점 거리 등을 둘러보고 곡성 기차마을을 관광하게 된다. 이들은 전남 관광을 마친 뒤 부산에서 또다시 2일 관광을 한 뒤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전남도는 또 해외 입국 노선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과 타이완 타이베이를 잇는 직항노선과 타이완 기항지에서 출발해 여수를 기항하는 크루즈선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타이완은 중국과는 다른 여행패턴으로, 소풍보다는 지역의 먹거리와 한류, 역사체험에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에 맞게 상품 개발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상무지구 연료전지사업 사업자 선정 속도

광주시 상무지구에 이르면 2019년부터 대체열원(代替熱源)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사업자 선정과 협약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소각장이 폐쇄돼 그동안 이 소각장의 활용해 상무지구 일대에 공급했던 열원이 사라지면서 연간 20억원의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상무소각장 대체열원으로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민간업체로 선정된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현재 열 공급 관로의 영산강 도강(渡江) 문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발전 뒤 생산한 전기판매를 놓고 남동발전 측과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다음달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어 시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초 착공, 2019년부터 열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료전지를 통해 생긴 열원은 광주의 신도시인 상무지구 내 광주시청, 광주시 부교육청, 광주가정법원 등 27개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된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동구,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광주시 동구는 29일 “세계보건기구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주민의 20.3%를 넘어선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동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3개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주민 고령화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든 세대가 통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구축에 중점을 뒀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선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고령사회정책의 정보망이자 정책 포럼의 장이다.

스위스 제네바, 미국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포틀랜드, 벨기에 브뤼셀, 캐나다 오타와 등 37개국 500여 개 도시가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전북 정읍시, 부산시, 경기 수원시, 제주도 등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가입 인증을 받았다.

김용희 동구청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목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